

야산

줄다리기



〈제1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출연〉

충 청 남 도

“아산 줄다리기”

유 래

줄다리기는 옛날부터 전국 각지에서 행해오던 민속놀이로서 대개는 정월 대보름날 또는 팔월 추석에 행하는 대중적 의의를 갖는 행사이다.

충남에서는 아산을 비롯하여 당진, 연기, 대덕 등지에서 성행되었으며 당진지방에는 아직도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아산 본읍에서 행하던 줄다리기는 참가인원이 수만명에 달하여 가장 규모가 크고 성대하였다.

아산의 본읍에서 동과 서로 나누어 여러 집으로부터 짚을 모아 큰 줄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은 남너노소를 막론하고 총출동하여 줄을 당기어 승패를 겨루었다.

줄에는 암·숫이 있어 동은 숫줄, 서를 암줄이라 일컬으며 이진 쪽은 그해의 악역(惡疫)에 걸리지 않고 농사는 풍작이 된다고 전해오고 있어 사람들은 과연 연사(年事)의 풍흉화복(豐凶禍福)이 마치 이에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서로 함성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승패를 다투어 왔다.

큰 도로 한가운데를 경계로 하여 동·서부의 각부락 사람들이 수만명의 집단을 이루었다.

미리 마련된 큰 줄에 동과 서가 서로 대치하여 열을 정돈하고 진두에는 반드시 이긴다는 「전필승(戰必勝)」이란 문귀를 쓴 기를 높이 들고 대사령·참모등이 연락을 하며 희고 붉고 푸르고 누른 대·중·소의 사령기들이 휘날리는 가운데 징과 북 등을 치면서 중앙누상의 대회장, 심판관의 지시와 동·서부 대사령의 구령에 따라 함성을 연발하며 서로 줄을 다렸다.

이 민속놀이는 부락상호간의 친목을 두텁게 하고 부락민들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이바지 해 왔다.

내 용

- ① 동·서부 농악대가 농악을 울리며 대사령·참모들이 각 부락민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줄다리기 대회장으로 나간다.
- ② 대회장이 줄다리기를 시작한다는 선언과 심판관의 규칙발표가 있는 다음 동·서부에서 줄을 잡고 각기 대사령의 구령에 따라 잡아 다린다.
- ③ 1차 줄다리기를 한 후 심판관이 중앙경계선에서 자로 재어 어느 편이 이겼다는 것을 알리면 이긴 편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즐겁게 놀며 진편에서도 그다지 흥겹지는 못하나 같이 논다.
- ④ 이긴편이 흥겹게 노는 허술한 틈을 타서 진편에서는 대사령·참모 등이 기습작전을 모의하여 중사령·소사령·장정들에게 알림으로써 갑자기 줄을 잡아 다려 성공한다. 이 때에는 앞서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동·서부가 놀게 된다.
- ⑤ 기습을 당한 편에서는 기회를 노려 동일한 방법으로 역습을 시도하나 상대편이 줄을 지키고 있어 실패한다. 그러나 양편에서는 사기를 높여 결전에 임하고져 흥을 북돋는다. (원래는 대결전이 있을 때까지 ④⑤와 같은 상태가 수없이 되풀이 되나 여기서는 그 일부 장면을 보이는 것임)
- ⑥ 대회장의 결전선언이 있게 되면 동·서부에서는 모두가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줄을 다려 어느 편이 승리하는 결판이 나게 된다. 승패가 끝나면 이긴 편에서 최고조에 달하는 감격과 흥분 속에서 날뛰며 논다.

진편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뜻이 멍하니 서 있는가 하면 땅을 치며 분해하는 자들도 있게 된다. 대회장·참모등이 만류하며 함께 놀기를 권유하여 다같이 흥겹게 춤추며 놀다가 퇴장한다.

☆ 줄의 규모 ☆

줄 제작에 소요된 새끼는 760타래로서 그 무게는 5.1톤이며 길이는 62.4m 이다. 또한 작업한 연인원은 77명에 달한다.

출 연 자 명 단

지 도 예 총 충 남 지 부
 안 무 이 미 라
 대 회 장 김 순 남
 심 판 관 정 재 북 · 박 현 숙

동부대사령 배 경 자
 참 모 엄 옥 순
 기 수 백 송 난
 나팔수 송 애 화
 중사령 이 운 남 외7인
 소사령 이 예 순 외7인

서부대사령 송 북 실
 참 모 이 남 춘
 기 수 이 흥 숙
 나팔수 허 후 남
 중사령 이 선 옥 외7인
 소사령 김 진 선 외7인

동 · 서부농악대 이 은 라 외30인
 장 정 이 영 희 외241인
 노 인 강 경 실 외13인
 부녀자 강 경 진 외9인
 소 년 김 현 자 외9인
 (충남여자고등학교생 318명)
 (이미라무용연구소생 26명)
 기 타 10명)